

原作에서 술자리에서 政治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한 부분을 飜案作에서는 비유를 써서 같은 내용으로 나타냈다. 위의 인용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松田는 玉助(타마수께)라는 기생을 욕한다. 그때마다 玉助는 ‘オヤマア口の悪いこと’(아이고 왜 그렇게 입이 걸어요?, 下p.119)라든가 ‘そんな悪口を仰しやると言ひ付けますよ’(그렇게 욕설만 퍼부으신다면 일러바칠 게요, 下p.121)라고 대답한다. 松田는 입이 건 사람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입이 건 모습은 河岸萍水 앞에서 ‘先生の様な守銭奴’(선생님 같은 수전노)라는 욕설이 입에서 나온 뒤에 ‘金の取締の善い’(돈을 아껴 쓰시는)이라고 고쳐 말하는 장면(下p.109)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한편 飜案作의 송군서에서는 입이 걸다는 성질은 찾을 수 없다.

竹村(타케무라)는 임주사에 해당된다.

竹村와 임주사에 대해서는 외모나 성격의 묘사도 없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장면도 없다.

竹村는 松田가 술자리에서 國野基를 꺾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도와서 富永春의 醜聞이 실린 신문을 낭독할 뿐이고, 한편 임주사는 송군서의 지시를 따라서 장래선의 醜聞이 실린 신문을 읽을 뿐이다.

田村(타무라)는 남덕중에, 그리고 島田(시마다)는 강순현에 해당된다.

이 두 명은 國野基와 武田猛가 福住樓(후꾸수미로우)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때에 옆방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술에 취한 武田猛가 뒷간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몸의 균형을 잃어서 미닫이문에 부딪혔다. 그랬더니 미닫이문은 떨어져서 옆방의 바둑판 위에 덮쳤다. 그래서 바둑 승부는 엉클어져 버렸다. 이 때 武田와 島田가 싸울 것 같이 되었는데 國野基와 田村가 그것을 막으려고 나섰다. 이 때 國野基와 田村가 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네 명은 곧 화해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신다.

한편 남덕중과 강순현이 등장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전철이 일비일비로 취토록마시더니 그씨 맛참오리 리별호얏던친구 두사람이 드러오니 호나논강순현이오 하나논남덕중이라 혼헌을 맞친후 오릭만나 지못혼회포를말삼홀시 술을 시로 가져오라호고 네사람이 혼가지로안져 술잔을눈오며 각 디방형편을 담론홀시 (p.45)

남덕중과 강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리태순과 문전철이 있는 방에 갑자기 들어온다. 이 두 명이 각각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누구와 누가 ‘오리 리별호앗던친구’인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原作에서는 서로 아는 사이인 것은 國野基와 田村뿐이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서로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對話를 한다.

「ウーン僕ハ武田猛と申すもので御坐る 田「左様なれば國野先生と御一緒に御入獄なされた御方ですな 島「失策の棒組ですハハア此の壯士ハ田村さんの御同郷ですか 田「イーエ〇〇縣の島田と云ふ御方で先年自由黨の盛んな時分に東京で交際をしましたが四五年振に圖らず此の樓に落合つて御一處になつたものです (下p.37~p.38)

(「으응, 저는 타께다 타께시라고 합니다. 타무라「그러면 쿠니노 선생님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신 분이군요. 쿠니노「실수의 짝입니다, 하하아. 이 분은 타무라씨의 고향 친구이십니까? 타무리「아니요, 〇〇縣의 시마다라고 하는 분인데 예전에 自由黨의 세력이 강했을 때에 東京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요, 오늘 우연히 이 여관에서 四~五年만의相逢이 이루어진 겁니다.)

위의 문장에서 田村와 島田도 이 날 여기서 四五年만에相逢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바둑이 엉망이 된 것에 대한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島「田村君御話の間だが其處の御兩人ハ先日新聞で大評判だつた國野武田の二先生かな 田「左様左様 島「夫れとも知らず先刻ハ實に御無禮二君とも御勘辨を願ひます」 (下p.38)

(시마다「타무라君, 이야기를 중단시켜서 미안한데 이 두 분은 조금 전에 신문에서 많이 호평을 얻으신 쿠니노 선생님과 타께다 선생님인가? 타무리「맞아. 시마다「그런 줄도 모르고 아까는 아주 죄송한 일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달이문을 쓰러뜨린 武田가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바둑에서 이길 직전이었던 島田가 사과하고 있다. 이 사실에서 島田가 武田와 國野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島田가 사과한 것에 대해서 武田는 ‘僕の躑躑いて唐紙を倒したから騒動が起つたのぢやが今になつて見れば却つて大出来であつた’(내가 비틀거리서 미닫이문을 쓰러뜨린 것이 소동의 발단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일이 잘 된 거구나, 下p.38)라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미닫이문을 쓰러뜨리기를 잘했다고 말한다.

島田(시마다)는 東京에 있는 學者나 政治家를 ‘無氣無力にして大丈夫の精神がなく其の上銘銘大天狗で他人を輕蔑し少しも結合がつかぬから今の様でハ國會が立つても強大なる政黨を組織することが出来まい(패기도 없고 힘도 없고 하물며 대장부의 정신은 전혀 없는 주제에 오만하기는 짝이 없고 항상 남을 깔보니까 전혀 단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國會가 개설되더라도 강대한 政黨을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下p.56)’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地方議會인 縣會에 대해서는 ‘縣會ハ大方行政官の奴隸となつて仕舞つて少しも頼みにならん(縣會는 거의 行政官의 노예가 돼 버린 상태니까 아무 일도 맡길 수 없습니다, 下p.41)’라고 개탄한다. 이와 같이 島田는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한다. 그러나 翻案作에서 島田에 해당되는 강순현은 한 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다. 즉 ‘강순현’이라는 이름이 나타날 뿐이다.

吝藏(린조우)는 구두쇠에 해당된다.

吝藏는 國野基에게 방값을 내라고 재촉할 때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旦那今お拂ひが出来ねバその眞黒ナ表紙の付て居る書物でも頂戴ませう二圓か三圓にハなるだらふト此間から鑑定を付て置たが旦那どうで御坐います’(지금 치러 줄 수 없다면 그 새까만 표지가 붙어 있는 책이라도 팔아 주세요. 二엔 또는 三엔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미 鑑定을 해 놓았는데 어땡습니까? 上p.80). 여기에 나오는 ‘書物’(책)은 國野基가 번역을 할 때에 쓰는 ‘ウェブストル’(Webster)라는 영일사전이다. 이 말에서 國野基의 소유물 중에는 영일사전보다 더 값이 나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國野基와 상의하기 전에 그것을 잡히면 얼마쯤 될 것인지를 알아봤다는 사실에서 吝藏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吝藏는 다음과 같은 말도 한다. ‘是れだから書生さんハ大抵斷ハるのだ金のない癖に能く人の内の飯を食つて居ることが出来るものだ’(그러니까 서생으로 살게 해 달라는 부탁은 대개 거절한다 말이야. 돈도 없는 주제에 용케도 남의 집의 밥을 먹을 수 있구나. 上p.80). 이것은 방을 세우는 사람의 일반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서생에 대한 경멸이기도 하다. 原作에서는 위에 인용한 吝藏의 두 가지의 말로 인해서 吝藏의 立場과 國野基의 窮

狀을 알 수 있다. 翻案作에서는 위의 두 가지의 말이 ‘구두쇠는 얼굴이 푸르락 붉으락하면서 무엇이라고 짓거리는데’(p.24)로 요약되었다.

原作의 吝藏가 취하지 않는 행동을 翻案作의 구두쇠가 취하는 장면이 있다. 리태순이 ‘밤이넘오 느긋스되 오시지 아니하시기로 주인셔방님게서 넘려하시고 인력거를 더리고가시더니 시로두점 가량은되야 모시고오셨나이다’(p.69)라는 장면이 그것이다. 결말 부분에서 리태순은 ‘주인구두쇠가 전지에는 인식하나 사름은직심이라(中略) 다항히 흥계에 빠지지 아니하얏도소이다’(p.78)라고 장매선 앞에서 구두쇠를 칭찬한다. 구두쇠는 서생을 매도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書生을 위협에서 건지는 행동을 취했다는 점에서 吝藏와 정반대이다.

松(마쓰)는 금년에 해당된다.

松는 國野基에게 그리고 금년은 리태순에게 三十圓이 든 편지를 가져다주는 인물로서 등장한다. 그리고 松의 묘사보다 금년의 묘사가 더 자세하다. 금년에 대해서는 ‘일흠은금년이오 나흔열륙칠세썸되고 의복은 화려치아니하나 사름됨이 령리하고 얼굴도 그다지 밋지아니흔모양으로’(p.24)라고 외모와 성품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한편 松에 대해서는 ‘此家の下女のお松と云へるが’(이 집의 下女인 마쓰라는 여자가, p.81)라고만 소개되어 있고 외모나 성품에 대한 설명은 없다.

藤井權兵衛(후지이 고펜베)는 권첩사에 해당된다.

藤井의 주소는 築地二丁目(츠키지니쵸우메)이고 원래는 長野(나가노)縣의 土族이었다. 14~5년 전에 廣島(히로시마)縣에서 일을 했을 때에 富永正左衛門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때부터 富永春와 친척관계가 되어 富永春가 叔父라고 부르게 된다. 그후 富永正左衛門의 여동생은 病死하고 藤井는 後妻를 맞아들인다.

한편 권첩사와 장매선의 관계는 이것과 다르다. ‘미선의부친이 처엄경성으로 올라와 스고무친하야 심히외로울씨에 권첩스를 만나 동향세의만 심각하고 의형테를 혼싸담으로 미선이가 숙부라칭하는것이라’(p.52)고 하는 것처럼 권첩사와 장매선은 친척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권첩사의 아내는 後妻가 아니다.

藤井는 富永春의 방에는 들어가지 않고 하녀를 통해서 富永春를 자신이 있는 곳에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 한편 권첩사는 하녀를 통하지 않고 갑자기 장매선의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때 富永春 또는 장매선에게 좋은 사위감이 있는데 어쩌냐고 권유하기도 하고 위조한 遺言狀을 보여서 협박하기도 하는데, 原作과 翻案作에서는 그 상황이 다르다. 原作에서는 다음과 같다.

お春ハ叔父權兵衛に呼び立てられ心ハ少しも進まねども小さき團扇を左の手に持ち鼈甲の櫛にて鬢のもつれを搔き揚げながら庭の飛石傳へに表坐敷へ至れば權兵衛ハ椽側に坐蒲團を敷き頻りに扇を揮ひながら手箱の中より數通の紙面を出だして取調べ居たるが (下p.86)

(春(하루)는 숙부 고펜에가 불러도 마음은 전혀 내키지 않았다. 그래도 春는 작은 부채를 왼손에 들고 대모갑 빗으로 흠어진 머리를 긁어 올리면서 마당의 징검다리를 지나가서 입구 쪽에 있는 객실까지 왔다. 고펜에는 뒷마루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부채로 얼굴을 부치면서 손궂 속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내서 무엇인가 확인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징검다리 위를 걷는 富永春는 왼손에 부채를 들고 오른손에 玳瑁甲빗을 들고 있다. 그리고 뒷마루에 방석을 깔고 앉은 藤井權兵衛는 한쪽 손에 부채를 들고 또 한쪽 손으로 손궂을 뒤적거리고 있다. 藤井가 뒷마루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과 두 사람이 모두 부채를 손에 들고 있는 것에서 계절이 여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집에 사는 藤井를 만나러 갈 때에도 흠어진 머리를 빗는 富永春의 행동에서는 언제나 마음의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조심스러움을 엿볼 수 있고, 손궂 속의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藤井의 모습에서는 남을 속이려는 사람의 用意周到함을 볼 수 있다.

한편 翻案作은 다음과 같다.

보던서책을짜에 더지고 상우에잇는슈건을 집어호염업시 흘으는눈물을 씻더니 마침 년기가 오십여세가량이나 된남자가 드러오며 네몸이 그저편하지못흐냐 우이오늘도 학교예를 아나가느냐 호는자는 본리 장흥사족으로 십사오년전에 덕적첨사를 단여온권첨스라 (p.52~p.53)

富永春의 경우와는 달리 장매선에게는 몸을 단정히 차리는 시간이 없었다. 권첨사는 여기서는 빈 손으로 들어온 것처럼 쓰여 있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장매선과 이야기를 하다가 '손궂속에서 편지훈장을 니야쥬'(p.56)는 장면이 있기 때문이다. 둘 사람이 다 부채를 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나 뒷마루가 아니라 방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 原作과 다르다.

國野基가 實은 深谷梅二郎(후까야 우메지로우)라는 것이 판명되자 藤井權兵衛는 富永春에게 사과한다. 그 사과의 말은 네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富永春에게 폐를 끼친 것을 사과한다. 둘째로 음모를 알면서도 藤井를 전혀 욕하지 않았던 富永春의 도량을 칭찬한다. 셋째로 國野基와 富永春가 結婚하면 한 쌍의 매화와 벚꽃과 같다고 비유한다. 여기서도 原作에서는 <雪中梅>의 ‘梅’가 國野基를 가리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로 저지른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혼례식의 중매인을 맡겠다고 약속한다.

한편 飜案作에서는 권첩사 내외가 없는 틈을 타서 리태순이 장매선을 찾아갔기 때문에 리태순이 實은 심랑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 권첩사는 그 자리에 없었다. 리태순과 장매선이 권첩사를 용서하는 뜻으로 그가 위조한 遺言狀을 불에 태웠다는 것을 알게 된 ‘권첩스니와는 비루흔사름이라 범포흔 치장을 일테탕감흠을보고 한업시 깃버흐’(p.79)였다. 그러나 장매선에게 사과하지는 않았다.

藤井權兵衛(후지이 고펜에)의 後妻인 たか(타카)는 권첩사의 마누라 정씨에 해당된다. たか(타카)의 용모는 ‘黒き入齒をムキ出して笑ひ乍ら’(검은 틀니를 그냥 드러내 놓고 웃으면서, 下p.99)라고 징그러운 모습으로 그려졌고, 그 성격은 ‘罪も無き下女を叱り付けるハ餘程ハケ敷老婆と知られたり’(허물이 없는 下女를 꾸짖는 모습에서 상당히 잔소리가 많은 노파임을 알 수 있다, 下p.101)라고 잔소리가 많은 사람으로 그려졌다. 한편 정씨에 대해서는 ‘쫓고라진입에 벗으러진 니가 입술밭그로 나오며 호호웃더니’(p.59)라는 용모의 묘사만 있고 성격묘사는 없다. 다만 たか(타카)의 이가 검은 틀니인 데에 비해 정씨의 이는 그냥 버스러진 이라는 점이 다르다.

梅吉(우메키치)에 해당되는 사람은 飜案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梅吉라는 기생에 대해서는 ‘二十の上を二ツ三ツ越せしと見ゆるが數寄屋の衣裳に淺黄博多の帶を締め白雪を欺く顔色の燈火に映ずるを見れば又棄て難き容貌なり’(나이는 스물을 두 세 살 넘은 것처럼 보이고 아주 얇은 비단옷을 입고 하늘색 띠를 띠고 그 얼굴에는 등불이 비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용모이다 下p.128)라고 그 年齡과 衣裳과 容貌가 묘사되어 있다.

梅吉는 國野基에게 ‘貴君誠にお久し振でしたヨ私も田舎でお別れ申しましてから’(참으로 오래간만이네요. 시골에서 못 만나게 된 후, 下p.130)라는 말을 한다. 이 말에서 이 두 명이 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松田(마쓰다)는 이 再會의 기쁨을 이용해서 둘이 서로 정을 통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松田의 계획대로 梅吉는 ‘旦那今晚ハ急いで御歸りにハ及びますまい私ハ色色お話をいたしたいことが御坐います’(선생님, 오늘 밤은 서둘러서 집에 가실 필요는 없겠죠? 저는 여러가지로 상담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下p.130~p.131)라는 말로 國

野基에게 접근한다. 술에 취한 國野基는 거기서 富永春에게서 온 편지를 받지만 둘로 찢어서 입 안에서 씹고 나서 저만치 내던져 버린다. 그리고 ‘姉さん一寸と彼の梅吉と云ふ女を呼んでお呉れ’(아줌마, 그 우메키치라는 아가씨를 잠깐 불러 줄래요? 下p.132)라고 下女에게 梅吉을 데려오라고 命한다. 이로써 國野基의 마음이 富永春에서 멀어지고 梅吉에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松田의 책략이 순조롭게 성공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梅吉은 國野基가 상당히 醜陋한 뒤에 비로소 미담이문을 열고 나타나는데, 翻案作은 리태순이 醜陋한 장면에서 ‘대십삼회’가 끝나기 때문에 梅吉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

玉助(타마수께)는 옥도에 해당된다.

原作에서는 松田(마즈다)와 竹村(타께무라)와 國野基가 술자리에 모이는 장면에서 기생이 두 명 나타난다. 松田와 竹村가 玉助(타마수께)라는 기생과 놀고 있는 사이에 國野基와 梅吉(우메키치)라는 기생을 단 둘이서 놀게 하려는 것이 松田의 의도였다. 술자리의 장면은 玉助가 샤미센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玉助는 松田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고 松田가 놀리는 말에 대답을 한다. 이것들은 모두 기생과 함께 술을 마실 때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묘사이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松田는 玉助의 귀에 입을 대고 조금 후에 梅吉(우메키치)를 불러 들여서 그녀와 國野基를 단 둘이서 놀게 해 달라고 수군거린다. 그러자 玉助는 일어서서 옆방에 가서 下女에게 작은 목소리로 그것을 전한다. 原作에 나오는 두 명의 기생에게는 각각 역할 분담이 있다. 玉助는 오로지 술자리의 분위기를 돋구기만 하고 梅吉은 오로지 國野基와 정을 통하려고만 한다.

한편 翻案作에서 옥도가 나타나는 것은 ‘오늘밤 이 좌석에서는 술이나먹고 옥도나더리고 놀아봅시다’하며 옥도에게 ‘겉눈짓을하니 옥도가 연희 태순의 눈을 맛초며 술을부어들고 온갖아양을모다부리나’(p.65)와 ‘옥도가 엮혀서 듯다가 말히되 언의곳사름인지는모로나 그러헌일까지 신문에오르니 견델슈 업스리로다’(p.67)와 ‘옥도의 권흔술을 못익의논테하고 오류비를마시니’(p.69)라는 세 가지 부분밖에 없다. 옥도는 술을 따르고 신문을 보고 놀랄 뿐이고, 송군서와도 임주사와도 리태순과도 전혀 對話를 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기생으로서 특기를 보이거나 게임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없다. 그러므로 翻案作에서는 송군서나 리태순이 기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藤井權兵衛의 집의 下女와 권첨사의 집의 下女 사이에도 차이를 찾을 수 있

다. 藤井의 집의 下女는 富永春에게 茶를 끓여 왔을 때에는 ‘椽側に手をつき’(뒷마루에 양손을 짚고, 下p.83), 그리고 富永春에게 손님이 왔다는 것을 알리러 왔을 때에는 ‘疊に手を付き’(다다미에 손을 짚고, 下p.100) 말을 한다. 즉 무슨 말을 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방바닥에 두 손을 짚는다. 이에 비해 권침사의 집의 下女는 ‘하인이 쓸압페와 고희되’(p.59)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 5. 정치사상

小説 <雪中梅>에서 가장 注目되었던 것은 作品에 反映되어 있는 政治思想이다. 原作이나 翻案作 모두 作品 속의 政治思想은 演說會의 장면과 討論의 장면에서 나타난다. 原作에는 國會開設의 準備에 대한 演說會와 府縣會의 문제점에 대한 討論이 나오는 데에 비해 翻案作에는 獨立協會의 擴張에 대한 演說會와 郡會의 문제점에 대한 討論이 나온다.

日本에서 國會開設運動을 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勢力이 있었는데, ‘하나 는 오로지 實行主義로 國會開設을 직접 쟁취하려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人民의 政治思想을 進歩·向上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國會開設의 機運이 생기도록 하려는 啓蒙主義者들이었다. 前者는 國會期成同盟이 중심이 되었고 後者は 嚶鳴社나 北辰社와 같은 啓蒙團體가 그 代表格이었다.’<sup>64)</sup> 原作 <雪中梅> 속에서는 武田猛가 實行主義者, 그리고 國野基가 啓蒙主義者로서 設定되어 있다.

原作의 演說會의 장면은 그 두 사람의 演說로 이루어져 있다.

武田猛의 演說은 요약하면 ‘國會를 開設했을 때에는 재산이나 지식이 적다고 해서 下等 人民의 參政權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sup>65)</sup>는 내용이다. 한편 國野基의 演說은 ‘明治十九年(1886年)三月二一日에 井生村樓(이부무라로우)에서 末廣鐵腸(수에히로 텃초우)가 한 「社會ハ行旅ノ如シ(社會는 旅行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는 演說의 轉用’<sup>66)</sup>인데,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는 國會開設이 결정된지 5년이나 지났는데도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개탄하고, 작은 정당들이 단결을 못해서 소멸하고 政治思想은 오히려 退步했다는 實情을 지

64> 柳田泉, 「政治小説研究」中卷(東京, 春秋社, 1968), p.332~p.333

65> 末廣重恭, 「雪中梅」(博文堂, 1886)上卷 p.19 참조.

66> 越智治雄, 『雪中梅』의位相, 日本近代文學大系 第2卷 「明治政治小説集」(東京, 角川書店, 1974), p.41



적한다. 둘째로는 政治思想이 退步한 원인을 나열한다. 그것은 즉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공상에서 나온 목표만을 내세운 점,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과격한 개혁을 하려고 한 점, 재산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奮發心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政治活動家들이 地方의 작은 組織조차 단단히 세울 수 없는 상태로 정권을 장악하려고 마구 발돋움을 한 점이다. 셋째로는 다시 정당을 일으켜서 政治思想을 進歩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방법은 학자와 실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협력하는 것과 地方마다 排他的으로 분열하지 않는 것과 과격한 개혁을 목표로 하는 언동을 삼가는 것과 哲學的인 空理를 버리고 실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 목표를 세우는 것의 네 가지이다. 넷째로는 지금 日本이 歐美諸國과 맞겨룰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각자 奮發하라고 청중들을 격려한다. 原作이 출판된 것은 1886년인데, 1880년대 前半의 日本 政界에는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1881년 10월에 自由黨이 결성되었다. (中略) 1882년 3월에는 立憲改進黨이 창립되었다. 그러나 재야세력의 肥大를 허용할 수 없었던 明治寡頭勢力은 양당에 대한 조작과 탄압을 본격화하는 한편, 천황중심주의의 헌정실시를 전제로 한 일련의 제도적 테두리를 만들기에 분주하였다. 1883년 9월에 改進黨이, 1884년 11월에 自由黨이 각각 해산되었다.'<sup>67)</sup> 國野基가 지적한 '政治思想의 退步'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歷史的 事實을 가리킨다.

國野基의 演說에는 '自然の勢'(자연의 형세)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과격한 개혁을 하면 꼭 실패한다는 것도 大同團結을 하면 꼭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自然の勢'(자연의 형세)라고 설명한다. 武田猛가 下等 人民의 권리를 보호하는 法制度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에 비해, 國野基는 사람들이 團結해서 움직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國野基는 일부의 사람들을 배척하게 된다고 해서 自由論 전체를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上p.41). 政治的인 상황을 위로부터 한숨에 바꾸려고 하는 武田猛의 견해와 아래에서 천천히 바꾸려고 하는 國野基의 견해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飜案作의 演說會는 다음과 같다.

演說의 내용으로서는 문전철의 것과 리태순의 것만 나온다. 문전철은 '타일 협회성립홍씨에 지산과 지식이 업는 자라야 하등인민을 정권에 참여치 못하게 홀리치가 업는 것은 명백함이오' (p.8)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原作에서 武田猛가 한 주장의 國會開設이라는 단어를 협회성립으로 代置했을 뿐으로 내용은 武田猛의 것과 같다. 한편 리태순의 演說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67> 愼根緯, 앞의 논문, p.14

로는 독립협회를 확장하는 일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개탄한다. 둘째로는 獨立協會를 創設한 당시에는 모두가 ‘일심으로 단테를 결합고져’(p.10)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슈헌 각식폐단이잇’(p.11)게 되었다고 개탄하고 그 이유를 ‘우리나라이 근천년을 남의게 의뢰호든습관을 혁파호지못호야 독립의스상을 연구호며 자유의권력을 양성치못호’(p.11)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셋째로는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전정의방침’(p.12)을 제시한다. 그 방침은 ‘학문가와 실디가의 화동함’과 ‘문벌직히는 부패호스상을 바릴’ 것과 ‘격렬호언론’을 삼갈 것과 ‘오할호의문을 물니치고 실디스업을 힘썸’의 네 가지이다. 이것은 國野基가 政治思想을 進歩시키는 방법으로서 제시한 네 가지와 일치한다.

‘우리나라이 근천년을 남의게 의뢰호든습관을 혁파호지못호야 독립의스상을 연구호며 자유의권력을 양성치못호’였다는 憂國心이 나타나는 翻案作 <雪中梅>가 한글만으로 쓰였다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 ‘민족의 자주 독립을 내세웠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언어의 독자성은 곧 민족적 고유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징표’<sup>68)</sup>였기 때문이다.

國野基의 演說과 리태순의 演說의 차이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原作의 ‘百里に行くものハ九十里に半バす’(백리 가려는 사람은 구십리를 중간으로 여겨라, 上p.25)라는 말은 翻案作에서 ‘백리갈사람은 구십리에 굶치지아니한다’(p.9)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뀐 것은 國野基가 하려고 하는 것이 準備였던 데에 비해 리태순이 하려고 하는 것은 擴張이었기 때문이다.

國野基는 지금 日本이 歐美諸國과 맞겨룰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각자 奮發하라고 청중들을 격려하지만 리태순의 演說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이것은 原作에 그려진 1885년의 日本에서는 모든 것을 西洋化시키려고 몸부림 치고 있었던 데에 비해 翻案作에 그려진 1897년~1898년의 韓國에서는 自主獨立을 실현하려는 獨立協會運動이 한창이었으며 歐美諸國을 憧憬의 대상으로서 그린다는 것이 時代狀況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旅行者는 처음에 계획한 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비유는 原作에서는 直接話法으로 길게 쓰였으나 翻案作에서는 間接話法으로 짧게 서술되었다.<sup>69)</sup> 翻案作은 翻案으로 인해서 작품 전체의 길이가 原作에 비해 상당히 짧아졌다. 따라서 여행길

68> 權寧珉, ‘개화 계몽 시대 서사양식의 장르 분화’, <韓國文化> 17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96. 6.), p.74

69> 한사람이 디방에나려갈시 일즉신디에 도달호라 호얏더니 도로가힘호야 인력거를 마암디로 물지못호고 또 중로에서 풍우를맛나 곤난함을격고 밤중까지 겨오삼시리를 갖다는 말을호면서 (p.9)

의 비유의 부분이 簡略化된 것은 전체적인 스토리 縮小의 결과로 볼 수 있다.

原作에서는 政治思想이 退步한 원인을 네 가지 지적한 뒤에 政治思想을 進步시키는 방법을 네 가지 제시했다. 따라서 앞의 네 가지와 뒤의 네 가지는 問題點과 解決策의 關係가 되어 있다. 한편 翻案作에는 政治思想이 退步한 원인을 지적하는 부분이 없고 ‘전정의방침’(p.12)만 쓰여 있다. 이것은 原作에 그려진 1885년의 日本에서는 1883년 9월에 改進黨이, 1884년 11월에 自由黨이 각각 해산된 직후라서 政治思想의 退步가 큰 문제였던 데에 비해 翻案作에 그려진 1897년~1898년의 韓國에서는 政治思想의 退步라고 할 만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당시 韓國에서는 무엇이 큰 문제였는가? 그것은 外勢로부터의 독립과 封建制度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러므로 리태순은 ‘남의게 의뢰하든습관을 혁파하지못하야 독립의스상을 연구하며 자유의권력을 양성치못하코’(p.11)라는 점을 韓國의 문제점으로서 지적했다. 즉 具然學이 당시의 韓國의 實情에 맞추어서 政治思想의 退步라는 문제를 독립과 자유라는 문제로 變形시킨 것이다.

原作의 府縣會에 대한 討論은 다음과 같다.

國會開設 이전의 明治政府의 형태는 일부 지역 출신자들에 의한 獨裁政治였다. 한편 行政單位인 府나 縣마다 設置된 府縣會는 주민이 투표로 의원을 고르는 民主政治였다. 그러나 府縣會와는 별도로 明治政府는 府나 縣에 대해서 行政官을 파견하고, 知事를 임명하고, 더 작은 行政單位에 대해서는 郡吏, 戶長을 임명했다. 이렇게 되면 行政官·知事·郡吏·戶長이라는 政府의 勢力과 府縣會라는 人民의 勢力이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다가 府縣會의 議決이 知事로 인해서 却下되기도 하고 府縣會 議員을 고르는 選舉人들이 郡吏나 戶長의 귀뽕을 따르게 되기도 해서 府縣會는 有名無實이 되었다. 國野基와 그 동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國野基가 지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府縣會 議員에게 勢力이 없는 것은 輿論의 聲援이 없기 때문이다. 議會와 人民이 斷絶되어 있기 때문에 地方行政官은 輿論을 무서워하지 않고 판을 칠 수 있다.
- 國法에 규정된 府縣會의 權力이 너무 적기 때문에, 知識이 있고 名望이 있는 사람들이 府縣會 議員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 選舉人이 立候補者의 主義나 言論에 전혀 注目하지 않는다.

(下p.44~p.49)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에 國野基는 ‘人民의 政治思想이 進步되어서 議會를 刺衝할 만한 輿論이 強大해지지 않으면 어떤 法律을 만들어도 實際로 利益을 볼 수는 없다’(上p.51)라고 결론을 짓는다. 한편 武田猛(타께다 타께시)가 지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地租를 十엔 以上 내는 사람이 아니면 議員이 될 수 없다.
  - 府縣會에서 論議가 許諾되어 있는 것이 地方稅의 支出入밖에 없다.
  - 府縣會에서 可決된 案件도 知事に 마음에 들지 않으면 不認可가 된다.
- (下p.51~下p.52)

이런 法制度 아래에서는 府縣會 議員도 人民도 政治를 성실하게 생각하려는 마음을 잃어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武田猛는 말한다. 그리고 人民의 政治思想을 타하기 전에 法을 개량해야 한다고 결론을 짓는다.

國野基와 武田猛 사이에는 民主政治가 위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래에서 이루어지느냐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이 대답은 國野基가 英國의 議院發達史의 예를 들으로써 해소된다. 人民이 政治意識을 가지고 강대한 여론이 형성되면 저절로 의회가 강해지고, 의회가 강해지면 국가의 법률도 저절로 인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翻案作의 郡會에 대한 토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郡會의 문제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 지방관리가 민권을 비리로속박하여 회원이 령성하여질뿐아니라 무삼의 안이잇던지 모다 빙빙과거홀뿐이니 의회가 잇셔도 업는모양이라
- 인민이 정치사상이 업서 의회를향하여 공동함이 업고 부정테에 경험히 업서정치상에 깃히 감각이 업슴 (p.46)

그리고 해결책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 무슨일이던지 혼번 굴흐면 혼번 신희는것은덩흐리치라 오날날 회의조잔함을 근심치말지어다
- 녀자사회를 기랑하여 사치하는 풍속과 비루한 형실이 업도록하여 속흐효험을불지니 (p.46)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여자사회의 개량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리태순은 ‘턴진으로 잇는 소아들을시정신 시스상이 들도록흐자면 녀자사회가 진보되야 집집이 가당학문이 잇슨연후라야 가히되리라흐나이다’(p.46)라고 여자에게도 학문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것에 대해서 문전철은 ‘녀자들이 조곰앗치학문이잇스면 녀오 주계남야 남녀동등권리나 말쑥마다 니세워가정을 문란케흐니’(p.47)라고 여자가 학문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 문전철은 독립회관의 演說에서는 ‘동등의권리’라는 제목으로 ‘지산과 지식이 업는자라흐야 하등인민을 정권에참여치 못흐게홀리치가 업는것은 명백함시오’(p.8)라고 주장하지만 남녀간의 ‘동등의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地方議會議의 改良方法에 대해서 討論하다가 原作에서는 여론을 일으키는 것이 먼저냐 法制度를 개혁하는 것이 먼저냐는 대립에 이르는 데에 비해 翻案作에서는 여자에게도 학문을 시켜야 되느냐 시키지 말아야 되느냐는 대립에 이른다. 이러한 차이는 原作이 출판된 1886년 당시의 日本에서는 國會開設을 앞두고 議會議制度를 整備하는 것이 急先務였던 데에 비해 翻案作이 출판된 1908년 당시의 韓國에서는 統監府時代였기 때문에 議會議制度의 整備를 論할 여지는 없었으며 한편 女性을 封建制度로부터 解放하자는 것은 全國民的인 要求로서 남아 있었다는 데에 起因한다. 地方議會議의 改良에 대한 討論이라는 原作의 틀을 그대로 쓰면서도 無理 없이 韓國의 實情을 반영시키고 있는 점은 翻案者의 역량으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開化期小說 가운데서도 ‘녀자사회를 기량흐야 사치흐는 풍속과 비루한 형실이 업도록흐여야’(p.46) 한다는 告發은 지극히 드물다. 이러한 異彩로운 지적은 具然學의 날카로운 觀察力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國野基의 政治思想과 리태순의 政治思想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國野基의 政治思想의 기둥이 되는 것은 人民啓蒙과 大同團結이다. 人民啓蒙의 必要性을 주장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人民の政事思想を引き起して有爲の人物を國會に出だし強大の輿論を造り出だす様に盡力せねばなるまい (下p.55)

(인민의 정치사상을 불러일으켜서 재능이 있는 인물을 국회에 보내야 되고 또한 강대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진력해야 된다)

그리고 大同團結의 필요성을 주장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今の世の中に完全な人が澤山にあるものか才氣のあるものハ品行があしく學問のあるものハ經驗に乏しいと云ふ様な工合で誰れも長處と短處とあるから若し備ハるを一人に求むる時ハ遂に天下の間に我が意にあたるものハあるまい(中略)廣く同志を四方に求めんとする時ハ我我と臭味を同うするもの許りでなく婦人なり小供なり身を屈して之に下らねバ自分獨りで功名を成す様な考えでは多數と共に運動を試むることハ出來まい(下p.59~p.60)

(지금의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 재기가 넘치는 사람은 품행이 나쁘고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은 경험이 모자라다는 식으로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어. 만약에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을 구하려면 이 세상의 어디를 찾아도 없을 거야. (中略)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폭넓게 사방에서 찾으려고 할 때에는 우리와 성향이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라도 아이에게라도 자신을 낮추어서 접근하도록 해야 돼. 자기 혼자서 성공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진행시킬 수는 없을 거야.)

한편 리태순의 政治思想도 그 중심이 되는 것은 人民啓蒙과 大同團結로 國野基의 思想과 일치한다. 그것은 ‘인민이 정치사상이 업서 의회를 향하여 공동흡이 업고’(p.46)라는 개탄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國野基의 政治思想과 리태순의 政治思想이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政權을 담당할 만한 政黨을 만들어야 된다’는 政治活動의 목표가 공통되어 있기 때문이다.

原作과 翻案作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政治思想이 서술되는 형식이다. 政治思想은 國會開設(獨立協會)에 대한 演說이라든가 府縣會(郡會)에 대한 討論이라든가 國野基(리태순)와 須田蠅之助(전성조)의 對話와 같은 問答形式 속에만 나타난다. 問答形式의 長點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추상적 논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해 낸 형식이 문답체이다. (中略)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분명히 구별할 수 없는 영역이 현실적 과제로 등장했을 때 그 힘이 그것의 적절한 표현 형식을 발견해 내게끔 한 것이다. 문답형식이란 따라서 신문논설 형식 다음 차례에 온 것으로 논설보다 진보된 형식이라 할 것이다. (中略) 문답체 작품의 필자는 신문기자 또는 논설위원들이다. 논설위원들이 한편으로는 논설을 쓰면서 문답체 형식의 작품을 함께 썼던 것은 그들이 논설체의 한계를 깨달은 증거가 아닐 수 없다.<sup>70)</sup>

위의 글은 韓國文壇에 관한 것이지만 末廣鐵腸가 曙(아케보노)新聞의 편집장, 朝野(초오야)新聞의 편집장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한 自由黨의 機關紙인 自由新聞에서는 社說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에게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新聞記事 때문에 두 번 감옥에 들어간 경험이 그에게 논설체의 한계를 느끼게 했다고 볼 수 있다.

政治思想이 서술되는 형식은 問答形式으로 같지만 翻案作에 나오는 演說이나 討論은 原作에 나오는 演說이나 討論에 비해 상당히 짧다. 그 이유의 하나는 翻案作의 작품 전체의 길이가 原作보다 훨씬 짧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장매선이 약혼자를 찾아다니는 이야기를 主題로 설정한 翻案作은 政治宣傳文으로서 쓰인 原作과는 달리 政治理念을 民衆들에게 알린다는 요소가 없고 다만 리태순이 政治活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제시하면 충분하다는 데에 있다.

主題의 차이는 結末의 차이를 招來한다. 原作의 結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國野가 富永春의 재산으로 인해서 평생의 꿈을 실현한다는 장면은 末廣鐵腸의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제시한 것이다. 즉 아무리 학식이 있고 열정이 있더라도 자본이 없으면 정치개량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로지 자본이 있는 사람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末廣鐵腸은 이러한 知力財力結合論을 그 장면 속에서 설명한 것이다.<sup>71)</sup>

翻案作에는 장매선의 재산으로 리태순의 政治的인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은 없다. 그 첫째 이유는 主人公인 장매선의 結婚 성취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知력과 財力の 結合으로 인해서 政治理念을 실현한다는 것 자체가 統監府時代에 접어든 1908년의 韓國의 상황에 맞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翻案作의 時代設定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獨立協會는 1896년 7월 2일에 獨立門·獨立公園·獨立館 建立을 위하여 創立되었고 1898년 12월 25일에 高宗이 獨立協會의 革罷令을 내림으로써 解散되었다.<sup>72)</sup> 그러므로 獨立協會가 존재한 기간은 二年半이다. 그러나 리태순의 演說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70> 김윤식, 정호웅, 「한국소설사」(예하출판, 1993), p.22~p.23

71> 柳田泉, 「政治小説研究」中卷(東京, 春秋社, 1968), p.425

72> 慎鏞度, 「獨立協會研究」(一潮閣, 1976), p.130~p.133

벌써 다섯해를 지나도록 큰산한곳도 넘지아니하고 김흔물한곳도 건너지못  
하면 이다음 또 다섯해동안에 처음에 작정한곳에 다다를일은 생각도못할  
바라 그러흔즉 장리우리협회 확장함을 김히예산치 아니하면 불가할지로다  
(p.10)

獨立協會의 擴張을 작정한지 五年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擴張計  
劃이 十年計劃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것은 原作의 設定을 고스란히 옮긴  
결과이다. 日本에서는 1880년에 天皇이 十年後에 國會를 開設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原作에 그려진 時代가 1885년이기 때문에 國野基의 演說 중에 五年이  
지났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현실 그대로이다. 具然學은 翻案過程에서 人物과  
場所는 韓國式으로 바꾸었으나 時代設定만은 原作의 것을 그대로 이용했다.

獨立協會의 擴張에 관한 演說이 실제로 行해진 것은 언제인가? ‘독립관련설  
장에까지 가서두루살히읍다가 텃헝으로 군자의 연설호심을 뵈앗스오나’(p.76)라  
는 장대선의 말에서 리태순의 演說이 獨立館에서 行해진 것임이 밝혀진다. 獨  
立館은 中國使臣을 위한 迎賓館으로서 使用되던 慕華館을 改修한 것이며 1897  
년 5월 23일에 完成되었다. 그리고 그 후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독립협회 회  
원들이 獨立館에 모여서 講演會를 갖게 되었다.<sup>73)</sup> 이 講演會가 翻案作에 나오  
는 ‘정치연설’(p.6)이라고 생각된다. 그 講演會의 主題와 날짜의 一覽表<sup>74)</sup>를 보  
면 1898년 4월 17일에 ‘각처에 독립 협회 지소를 설립호는 것이 본회의 데일  
요무임’이라는 主題로 독립협회 지방 지회 설치의 가부를 묻는 토론회가 行해  
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翻案作에 나오는 演說會는 1898년 4월 17일에 獨  
立館에서 行해진 토론회가 그 모델이 되어 있다. 翻案作에 나타나는 ‘방청의갈치  
호는소리 스벽을진동호며’(p.10)라는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다. 獨立館에서 일요  
일마다 行해진 토론회는 독립협회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토론  
회의 규칙을 보면 ‘會員 이외의 傍聽人의 參觀을 적극 권장한다’<sup>75)</sup>는 항목이 있  
다. 翻案作의 나오는 갈채 소리는 이 ‘會員 이외의 傍聽人’으로 인한 것이다.

다음에 남덕중의 말에 나오는 ‘년전에 우리가 서로동지지인을 천거호야 지회  
를 조직호미 빅스가 진취되더니’(p.46)가 언제의 일을 가리키는지 생각해 보기  
로 한다. 처음 독립협회의 支會가 설치된 것은 1898년 2월 이전에 忠淸南道 公  
州支會의 創立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sup>76)</sup> 그러므로 ‘지회를 조직호미’의 부

73> 慎鏞度, 「獨立協會研究」(一潮閣, 1976), p.260~p.261

74> 慎鏞度, 위의 책, p.263~p.267

75> 慎鏞度, 위의 책, p.262



분은 1898년 2월쯤의 일을 가리킨다. 많은 支會 중에서 가장 強力한 支會는 平壤支會와 大邱支會였다. 平壤支會는 本會가 經費不足에 부딪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1898년 11월에는 補助金 五十圓을 本會에 奉呈했고 12월에는 萬民共同會의 經費不足을 充當하기 위해 四百圓을 募金했다. ‘빅스가 진취되더니’의 부분은 이와 같은 平壤支會의 活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時期는 1898년 11월~12월이다. 獨立協會는 처음에는 支會創立에 消極的이었기 때문에 地方民이 自發的으로 發起人團을 構成하여 서울의 獨立協會에 代表를 보내어 支會設置 認可를 호소하여야 비로소 支會가 하나 생긴다는 형편이었다. 支會에 대한 이러한 消極的인 자세가 積極的인 것으로 변하는 것은 全國의 支會創立 신청자에게 答장을 넘과 동시에 ‘支會認可條例’와 ‘支會細則’을 제정하여 발송한 1898년 12월부터이다. 飜案作에서 남덕중은 地方 形편을 視察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支會認可條例’ 중의 ‘本회 회원중에 학식이 유여한 자를 뽑아 각군 지회에 旣를 旣라 枋송하여 시찰(視察)케 하느니 부비는 본회에서 지급(支給)함’이라는 項目의 任務를 遂行한 것으로 보인다.<sup>77)</sup> 그렇다면 飜案作에서 郡會에 대한 討論을 하는 장면의 모델은 1898년 12월의 獨立協會 會員들의 모습이다. 支會認可條例가 制定된 것이 1898년 12월이고 獨立協會가 解散된 것이 1898년 12월 말이기 때문이다.

---

76> 愼鏞度, 위의 책, p.106

77> 愼鏞度, 「獨立協會研究」(一潮閣, 1976), p.106~p.111

## 第4章 결론

末廣鐵腸가 創作한 <雪中梅>는 國野基가 國會開設을 앞두고 널리 여론을 일으켜서 政權을 담당할 만한 政黨을 만들려고 하는 政治小説이고 한편 具然學이 翻案한 <雪中梅>는 장매선이 父親이 定해 준 약혼자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結婚을 성취하는 戀愛小説이다. 이러한 차이를 생기게 한 가장 큰 원인은 출판 당시의 政治的 狀況에 있다. 原作이 출판된 1886년 당시 日本에서는 國會開設을 앞두고 全國各地에 크고 작은 政黨이 생겼다. 그러나 政黨들은 大同團結을 이루지 못했고 國民들은 政治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藩閥政治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올바른 의회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時代의 急先務였는데 그 해결방법을 소설을 통해서 제시한 것이 原作 <雪中梅>이다. 한편 翻案作이 출판된 1908년 당시 韓國은 統監府時代였기 때문에 大同團結을 해서 의회제도를 확립하자는 주장은 時代狀況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翻案作 <雪中梅>에서는 原作에 있었던 政治的 要素가 크게 약화되면서 한 여자의 結婚問題가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翻案作의 主人公인 장매선은 약혼자를 찾기 위해서 演說會에 가 보기도 하고 길가에서 만난 남자에게 말을 걸기도 한다. 積極的인 女性을 그리는 것은 開化期 小説에 하나의 특징인데 翻案作 <雪中梅>도 예외가 아니다.

原作의 構成上의 特徵으로서 '發端'이라는 章이 있어서 2040년의 視点에서 1885년의 일을 회상하는 未來記가 되어 있다는 점과 各回의 시작 부분에 그 回의 내용을 요약한 漢文이 있다는 점과 本文 위에 출판사로 인한 작품해설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독자의 관심을 끄는 효과와 독자의 내용 이해를 돕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며 政治理念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裝置로 볼 수 있다. 翻案作에서 위와 같은 構成上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 것은 政治理念을 널리 알린다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文體에 관해서는 原作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多樣的 表現技巧과 仔細한 場面描寫가 翻案作에서는 거의 볼 수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原作에는 있으나 翻案作에는 없는 表現技巧은 '文章의 餘韻'과 '漢文套'와 '對話다운 對話'이다. 原作에 '文章의 餘韻'이 있는 것은 소리와 유머(humor)가 많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餘韻은 緊張으로부터 弛緩으로 向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原作 <雪中梅>에서는 政治思想이 나타나는 부분이 緊張의 장면이고 소리와 유머가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弛緩의 장면이다. 原作에 漢文套로 쓰인 부

분이 많은 것은 末廣鐵腸가 젊은 시절에 漢文을 전문적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15세 때부터 朱子學과 陽明學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편 翻案作에 漢文套가 거의 쓰이지 않고 日常的인 口語體의 사용이 눈에 띄는 것은 開化期小說 전반에 걸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이다. 原作에서 ‘對話다운 對話’가 이루어져 있는 것은 입말의 특징인 副詞, 感歎詞, 終結語尾의 빈번한 사용을 등장인물의 對話 속에서 實現했기 때문이다. 한편 翻案作에서는 地文과 對話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朝鮮小說의 형식을 이어받고 있다. 原作에서 仔細한 場面描寫가 가능했던 이유는 末廣鐵腸가 描寫를 重要視하는 小說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國野基의 행동의 대부분이 末廣鐵腸의 體驗이었다는 점에 있다. 한편 翻案作에서 자세한 場面描寫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韓國 開化期에는 자세한 묘사를 하는 것보다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경성하는 것을 더 重要視하는 小說觀이 支配的이었다는 데에 있다.

인물의 형상화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國野基와 富永春의 關係’와 ‘리태순과 장매선의 關係’에 있어서이다. 富永春에게 있어서 國野基는 ‘政治活動이 잘 되도록 도와 주는 對象’이고 두 사람이 모두 政治活動을 優先한다. 한편 장매선에게 있어서 리태순은 ‘父親이 定해 준 結婚의 對象’이고 두 사람이 모두 結婚을 優先한다.

政治思想이 나타나는 부분은 翻案으로 인해서 演說會의 主題가 國會開設의 準備로부터 獨立協會의 擴張으로 바뀌었고 旅館에서 行해진 政治討論의 主題가 府縣會의 改善策으로부터 郡會의 改善策으로 바뀌었다. 原作은 政治思想을 독자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길고 자세하지만 戀愛小說로서 쓰인 翻案作에서는 리태순이 政治活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만을 제시하면 충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짧고 간략하게 쓰였다.

原作의 結末은 ‘政治에 대해서 아무리 知識이 많고 熱情이 있어도 資金이 없으면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政治活動家は 財産이 있는 사람과 結合해야 된다’는 末廣鐵腸의 知力財力結合論이 具現化된 것이 되어 있다. 한편 翻案作의 結末은 奸計를 꾸며서 장매선을 괴롭혀 온 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장매선과 리태순의 두 사람이 溫和스럽게 結婚의 約束을 맺는 혜피 엔딩이다.

본 논문은 <雪中梅>라는 한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原作과 翻案作의 對比研究을 한 것이며, 日本 明治時代 文學과 韓國 開化期 文學의 全體的인 關連樣相을 밝히기 위해 내디딘 첫걸음에 不過하다. 보다 正確한 結論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作品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對比研究가 必要하며 그러한 研究業績을 쌓아 가는 것이 앞으로 筆者가 나아갈 길이다.

< 참 고 문 헌 >

1. 기본 자료

末廣重恭, 『雪中梅』 上卷, 下卷, 東京 : 博文堂, 1886.

具然學, 『雪中梅』, 滙東書館, 1908.

2. 국내 논저

權寧珉, 「開化期小説의 文體研究」,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5.

——, 「개화 계몽 시대 서사양식의 장르 분화」, <韓國文化> 17,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96. 6.

金秉喆,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乙酉文化社, 1975.

金允植, 정호웅, 『韓國小説史』, 예하출판, 1993.

金天惠, 『소설 구조의 이론』, 文學과知性社, 1990.

金澤東, 『比較文學論』, 새문사, 1984.

白 鐵,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1968.

愼根絳, 「『雪中梅』에 담긴 近代意識」, 『韓日近代文學의 比較研究』, 一潮閣, 1995.

愼鏞度, 『獨立協會와 萬民共同會』 社會思想編, 한국일보社, 1975.

——, 『獨立協會研究』, 一潮閣, 1976.

柳基龍, 「具然學의 <雪中梅>, 그 작품적 특질」; 申東旭 편, 『新文學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尹明求, 『開化期小説의 理解』, 仁荷大學校 出版部, 1986.

李商燮, 『문학 연구의 방법』, 探求堂, 1985.

李在銑, 『韓國開化期小説研究』, 一潮閣, 1972.

——, 『韓國現代小説史』, 弘盛社, 1979.

李海朝, 「花의 血」 後記, <每日申報>, 1911. 6. 21.

——, 『즈유종』, 廣學書舖, 1910.

- 全光鏞, 「新小説研究① 雪中梅」, <思想界>, 1955. 10.
- , 「韓國小説發達史 下」, 『韓國文化史大系 V』,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67.
- 趙東一, 『한국문학동사 4』 제3판, 지식산업사, 1994
- 曹南鉉, 『小説原論』, 고려원, 1982.
-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人間社, 1961.
- 車相轅, 『中國文學史』, 東國文化社, 1958.
- 崔華星, 「女性解放運動史」, 『朝鮮女性讀本』, 白羽社, 1949.
- 芹川哲世, 「韓日開化期政治小説의 比較研究」, 『現代文學研究』 第15輯, 서울大學校 現代文學研究會, 1975.
- 「開化原委」, <朝陽報> 2호, 1906. 7. 10.
- 「演劇界之李人植」, <大韓每日申報> 論說, 1908. 11. 8.

### 3. 국외 논저

- 飛鳥井雅道, 『日本近代の出發』, 東京 : 塙書房, 1973.
- 越智治雄, 『近代文學の誕生』, 東京 : 講談社, 1975.
- , 「『雪中梅』의 位相」, 日本近代文學大系 第2卷 『明治政治小説集』, 東京 : 角川書店, 1974.
- 末廣鐵腸, 『訂正増補雪中梅』, 東京 : 嵩山堂 , 1890. 5.
- , 「政事は小説と孰れか難き」, <朝野新聞>, 1887. 1. 20.
- , 「干涉ノ弊害」, <朝野新聞>, 1881. 3. 11.
- 中村光夫, 『日本の近代小説』, 東京 : 岩波書店, 1954.
- 柳田泉, 『明治初期の文學思想 上卷』, 東京 : 春秋社, 1965.
- , 『政治小説研究 上卷』, 東京 : 春秋社, 1967.
- , 『政治小説研究 中卷』, 東京 : 春秋社, 1968.
- 梁啓超, 『飲氷室文集』 上, 教育篇, 上海 : 廣智書局, 1903.
- E. M. Forster, 『小説의 理解』, 李城鎬 譯, 文藝出版社, 1975.
- Georg Lukacs, 『小説의 理論』, 潘星完 譯, 심설당, 1985.
- Rene Girard, 『小説의 理論』, 金允植 譯, 三英社, 1977.